

# 경기도 사무관 자체교육 추진 항의

### 전북혁신도시 자치인재개발원 인건 주민들 “행안부, 요청 즉각 반려해야... 균형발전 근본 취지 퇴색” 도의회 의원들 “경기도 승진 공무원 자체 교육 추진계획 철회해야”... 전북대 약학대 신설 선정도 촉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건 주민들이 경기도가 사무관(5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자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했다. 26일 전북 원주군 이서면 하숙마을 주민 20여명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요청을 즉각 반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주민은 교육생을 상대로 대부분 하숙집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 터를 잡은 주민의 생계 문제가 달려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경기도가 최근 행안부에

자체교육 운영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을 저해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민약 교육 인원의 17%에 달하는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면 40%에 달하는 공실률이 50~60%로 올

라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며 “전체 산을 투자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행안부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남은 커녕 전화조차 없었다”며 “오늘 세종시를 찾아 집회를 신청하고 강력 항의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서 전북도의회 의원



경기도 5급 승진자 자체 교육 추진 반대 기자회견이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성환 전북도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승진 공무원 자체 교육 추진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신설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 “한-몽골 수교 30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낙연 총리, 오희나 후렐수흐 총리와 회담  
“산업·환경·보건 협력 확대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내년이면 한국과 몽골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된다”며 “포괄적 동반자관계인 양국 관계를 더 격상하고 양국 대통령이 내년까지 상호방문해 두 나라 관계를 한 단계 더 올리는 내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울란바타르에 있는 몽골 정부청사에서 오희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 회담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1990년 바로 오늘 두 나라가 수교한 이후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두 나라 대통령 모두 임기 중에 상대국을 방문했고, 지난해에는 20만명의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몽골의 6대 교역국에 들어가고, 4대 수출국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두 나라가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환경과 보건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렐수흐 총리는 “총리로서 첫 고위급 해외손님으로 이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며 “20년 전 한국과 몽골이 외교 관계를 맺었다. 수교를 한 뜻깊은 날에 (이 총리가) 방문을 해줘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방한을 회상하며 “이 총리의 유능한 지도력 하에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지켜봤으며 한국 국민의 친근한 마음



몽골을 공식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오희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을 느꼈던 영광스러운 계기를 떠올리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 간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학술·문화·예술 등 공동행사를 열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4차 한-몽골 공동위원회를 올해 여름 안에 개최하기

로 했다. 양국 총리는 한-몽골 관계 격상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한국 정부가 신북방정책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수퍼그리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계획에 몽골이 함께 해주길 부탁했고, 후렐수흐 총리는 지역 에너지안보에 중요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환경협력과 관련하여 “몽골 총리의 강력한 의지로 대기오염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가 지원한 EDXF(대외경제협력기금)이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몽골에 7억달러 규모의 유상차관인 EDXF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몽골은 그 중 5억달러를 대기오염 해결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EDXF를 활용할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아울러 양국 총리는 항공·영사·보건분야의 활발한 협력도 평가하고 직항 항공편 확대, 정기비자 발급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몽골 국립 과학기술대학의 I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케이팝(K-POP) 공연 추진 문제도 논의했다.

이 총리와 후렐수흐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후렐수흐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방문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방한 당시 후렐수흐 총리는 이 총리를 몽골로 초청한 바 있다. 전날 울란바타르에 도착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수호바타르 광장에서 후렐수흐 총리 주재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몽골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총리는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양 팔을 벌린 채로 후렐수흐 총리 쪽으로 걸어가 포옹을 하며 유대관계를 드러냈다. 이후 양국 총리는 몽골을 상징하는 붉은색 타이를 매고 나란히 연단에 서서 의장대 사열을 받은 뒤 회담에 들어갔다.

이 총리는 회담 마무리에서 “후렐수흐 총리를 1년 2개월 만에 만났는데 마치 지난주에 만났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 총리는 회담 마지막 인사말에서도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송무백열(松茂栢悅)’을 언급하며 몽골의 발전을 기원했다. /뉴시스

## “마약사범 재판 42%가 솜방망이 처벌”

김광수 의원, “벌금·집행유예 판결 내려져 가벼운 처벌로 ‘버닝썬 사건’을 만들게 돼”

클럽 버닝썬 사건이 마약 유통과 투여 등으로 번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마약사범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범죄자의 42%가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최근 3년간 마약류법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1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약식 1080건(2.5%) △기소유예 7,360건(16.9%) △기소중지 2,518건(5.8%) △무혐의 4,560건(10.5%)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을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 36.1%, 2018년 36.6%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구체적으로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 평화당 전북도당 당원대표자 대회... 신임 도당위원장에 임정엽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26일 제1차 정기당원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자”는 각



오를 다졌다. 대표자 대회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정대철 상임고문, 김광수 국회의원, 조배숙 전대표, 박주현 의원 등 당내 의인사 600여명 참석했다. 특히 이날 임정엽 완전무장위원장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진성 기자

